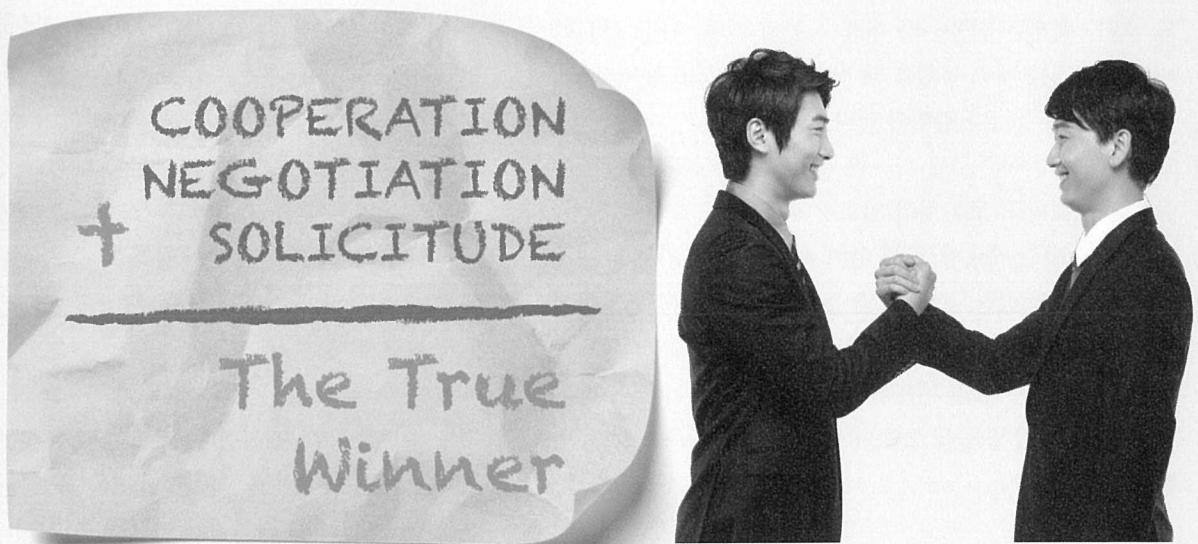


## 싸움, 이기는 것이 중요한가? 저주기 전략이 불러온 승리

우리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각종 싸움이 만연한 세상에서 과연 이기는 것이 중요한 때란 언제이며 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싸움과 협상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악해본다.

글 선안남 상담심리사



대학 시절 '비즈니스 잉글리시'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이다.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던 선생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상 수업을 제안했다. 그는 학급 안에 있는 모든 학생이 차례로 1:1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협상을 통해 10이라는 숫자를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규칙이 있었다. 절대 5:5로 나눠서는 안 되며 2분 안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 0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니 학생들은 2분간의 협상을 통해 6:4든 7:3이든 8:2든 9:1이든 결과를 내야 했다. 협상에 성공해도 어느 한쪽은 더 많이 가지고 다른 한쪽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학생이 시험에 열렬히 임했고 모든 협상이 끝났을 때 승자가 누구이며, 내가 획득한 점수가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해서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협상이 모두 끝났을 때 우리는 협상 결과에 놀라고 말았다. 왜냐하면 가장 욕심이 없어 보였고 야심이 없어 보였던 한 남학생이 승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 학생들은 그와의 협상에서 6이나 7을 가져갔고 그에게 3이나 4를 주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낮은 점수를 가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점수를 합산해보니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그였다. 그는 모든 협상 테이블에서 적어도 3점이나 4점을 획득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분을 다 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그의 '저주기' 전략은 결국 그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기기' 전략을 펼쳤고 그 전략은 그들을 이기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 반드시 이길 때와 저도 괜찮을 때를 구분하는 해안

이 시험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 게임에 불과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우리가 왜 이기려고 하면 지게 되고,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기게 되는지, 다른 사람과 벌이는 심리 게임이 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지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저도 괜찮은 일 앞에서 이기기 위해 진을 뺀다. 그러다 보면 정작 꼭 이겨야 할 싸움에서 맞서 싸워 이길 에너지를 잃고 만다. 과연 이기는 것이 중요한 때란 언제이며 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 1.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싸움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리고 나 하나만 관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순간순간 판단을 잘 내려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곧잘 혼란스러워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싸움을 이끌어간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

이자 잭 웰치의 부인이기도 한 수전 웰치는 자신의 책 <10-10-10>에서 이런 조언을 한다. 혼란스러운 순간일수록 10분 뒤, 10개월 뒤, 10년 뒤에 나의 결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현재의 관점이 아닌 미래의 관점으로 지금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는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리기 쉬운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기준이 된다. 이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핀다. 사람마다 중시하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모두 다르다. 또한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물론 내가 싸워서 이길 가치가 있는 싸움이라면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런데 내가 중시하는 가치에 비춰보건대 원치 않은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려 있다면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기ing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 말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이분법적인 평가의 기준을 허물고 내 마음을 보고 패턴을 보기를 요구한다. 이 말을 잘 곱씹어 내 삶에 적용해보면, 지고 있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기고 있지만 저도 무방한 내 삶의 단면을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을 기르게 될 것이다. ⑥